

2009년 추동 내의 동향

1. 군제

군제는 2009년 추동에 핫매직을 남녀용으로 전개한다. 로고를 표시하여 소재의 발열 기능을 고객이 알기 쉽게 하였다. 발열력은 종래 보온 소재인 아크릴 혼용 편성물 보다 30% 향상시켜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2008년 추동 제품에 비해 10% 가볍게 하여 경량화도 실현했다. 유연함 등의 쾌적성에 더해 편성부터 봉제까지 일관되게 일본에서 진행하였다. 남자용은 바디와일드 상표로, 표준 라인, 캐주얼 라인, 컷오프 라인의 3가지 타입이며, 여성용은 CFA100 상표로 발매하여 핫매직으로 전년 실적의 50%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림 1> 발열 기능을 알기 쉽게 전시한 모습

2. 헤인즈브란즈재팬

헤인즈브란즈재팬은 언더웨어 브랜드인 헤인즈의 추동 대응 상품으로 세컨드스킨 감각에 의한 고기능 온감 내의인 컴포트폼 상품군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동일 브랜드의 전통적인 와플 소재를 사용한 타입을 차별화 아이템으로서 전개한다.

하이테크 소재와는 구분되는 와플 소재는 요철감이 있고, 통기성과 신축성이 높으며, 유연한 촉감, 뛰어난 보온성 등이 특징이다. 구성 아이템은 티셔츠와 타이츠, 캐주얼피트 및 색상 변화 제품이다.

타이츠는 롱타입 이외에 이번에는 하프타입도 내놓았다. 또한 티셔츠는 옥입기가 자유롭고, 1장으로도 겹쳐입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가타쿠라공업

가타쿠라공업은 HAORI프로듀스트와 터프가드의 추동 신작을 내놓았다. 모두 올봄에 데뷔하여 감성, 기능에 신경 쓴 신사 내의이다.

전자는 성인의 멋스러움 등을 추구한다. 추동 제품으로는 이형 단면 폴리에스터 테크노파인 혼용 및 유연한 촉감의 레이온 혼용 면 교편성물을 사용하여 완만한 피트감의 중후 타입을 제안한다. 재생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환경 문제를 고려했다.



<그림 2> 전통 소재를 사용한 헤인즈 와플



<그림 3> 터프가드 추동 컬렉션

한편, 터프가드는 흡한속건, 소취 효과 등의 기능을 부여한 복서브리프를 내놓았다. 대상은 20~30대이며, 추동에는 오렌지 및 퍼플 등의 새로운 색상을 더하여 기능과 함께 감도도 높였다.

4. 로이네

리바이스 브랜드의 언더웨어를 전개하는 로이네가 호조이다. 2009년 춘하에는 베이직 컬러의 원단에 고무 부분을 파스텔 컬러로 디자인한 보통스가 히트였다. 남자용 언더웨어의 고감도화의 트렌드에 합류하여 대학생 및 20대의 회사원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추동에는 이 보통스를 계속하여 금후의 정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상품으로서는 면, 아크릴 혼용의 컬러 타이츠를 제안한다. 품위있고 화려한 색의 사용을 포함한 6가지 색상을 전개한다. 상품의 포장은 세탁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 고무 부분에 브라이트사를 사용하여 리바이스의 로고가 빛나는 디자인 및 카우친 모양으로 겨울 분위기를 표현한 복서브리프를 제안한다.

게다가 흡한속건 및 소취, 온도 조절 기능을 부가하여 기능성이 풍부한 아이템도 확충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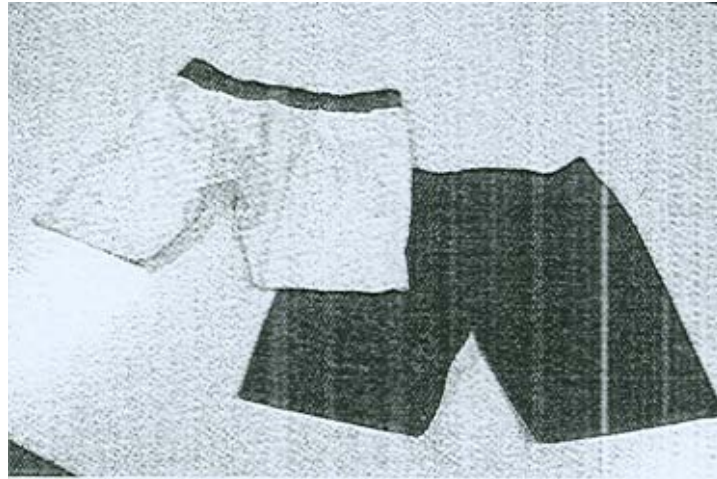
<그림 4> 세탁망으로 된 포장재에 넣어 판매하는 컬러 타이츠

5. 사쿠라이

아우터실루엣의 슬림화와 함께 사쿠라이는 이번 추동부터 박지 폴리에스터 소재의 힙업복서를 발매한다.

내측의 파워네트로 복부를 넣어주고, 힙업 기능을 부여한다. 박지 소재로 뽀뽀한 느낌이 나지 않고, 옷자락은 헴 모양으로 겉옷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개와 전폐의 2타입으로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양판점에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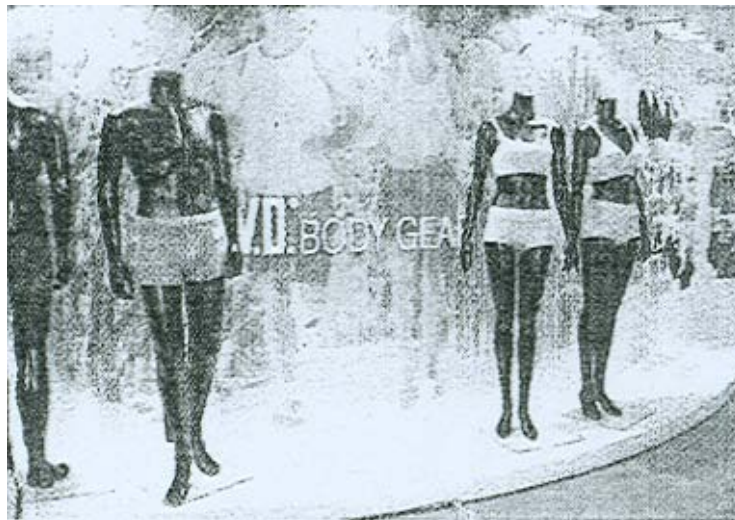
또한 매끄럽고, 유연한 촉감이 신사 내의로도 인기를 모으면서 2009년 추동은 텐셀 및 레이온 혼용의 복서브리프를 강화한다. 짧은층용 캐릭터 트렁크도 전개한다.



<그림 5> 파워네트로 보정 기능을 부여한 내의

6. 후지보어패럴

후지보어패럴은 2009년 추동용으로 BVD 바디기어를 남녀 공통 컨셉인 릴렉스와 라이트스포츠, 여유와 건강으로 전개하여 매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림 6> 남녀 한쌍으로 성형 힙업 복서를 판매

보통으로는 여성용에 채용된 본딩 기술에 의한 무봉재의 성형 힙업 복서인 오시리프트복서를 남녀용 한쌍으로 전개한다. BVD 골드는 정규 백물에, 폴리우레탄 미사용으로 독자 편성 설계에 의해 코스, 웨일 신축성을

실현한 신상품 노비라쿠를 투입한다. BVD 시즌 워터치로는 30~40대 셀러리맨용의 경방한으로서 미쓰비시레이온의 마이크로 아크릴 페데와 나일론을 교편한 워리니트를 추가 제안한다. 2009년 추동은 남성용의 매상고로 전년에 비해 4% 증가를 내다본다.

7. 아즈

아즈는 2009년 추동에 흡습 발열 소재인 엑스를 혼용한 내의 보다 가격을 내린 접촉 온감 내의 단온을 투입한다.

도요보의 마이크로 아크릴 원기어를 이용하여 공기가 도망가지 않는 편성 구조로 착용 시의 차가움을 없게 했다. 20% 레이온 혼용, 30% 나일론 혼용의 2가지이다.



<그림 7> 마이크로 아크릴의 접촉 온감 내의

실험에 의해 실온 20도의 환경에 2시간 방치한 후, 체온에 가까운 35도 환경으로 옮기면 100% 소재에 비해 피부측 소재 표면 온도가 0.7~1도 높다고 한다. 부인에게 호조인 극상은 2009년 추동부터 신사용으로도 발매한다. 도요보 인피니시스를 채용하여 매끄러움, 드레이프성을 표현한다. 엑스 혼용 서모아자스토는 실부터 봉제까지 일본에서 진행한다. 터틀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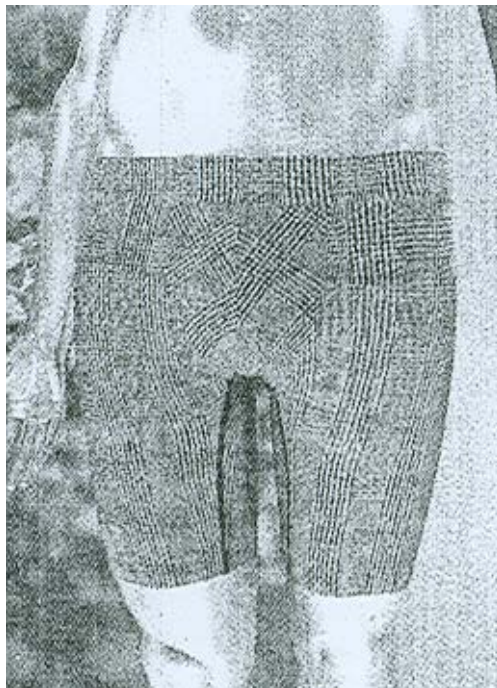
겉옷과 유사한 상품도 내놓는다.

8. 와코루

와코루는 백화점 대응의 신사 내의 브랜드 다무스로 고기능 내의 크로스워커를 중심으로 한층 더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기능과 감성의 융합으로 신시장 창조를 겨냥하여 본격 스타트한 작년은 100개 점포였지만 올봄은 160개 점포로 전개 중이다.

추동용으로는 크로스워커의 충실과 일반 보텀스로의 기능성을 다시 어필한다. 전자로는 새로운 정규 아이템으로서 핀스트라이프와 그렌체크의 패턴 제품을 제안하여 신고객 개척을 추진한다. 또한 겨울용으로 피부 측에 흡습 발열 소재인 엑스를 사용한 타입을 전개한다.

일반 보텀스로는 기능성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이제까지의 1품번, 1품위, 1기능 타입에 더해 1품번, 복수 부위, 복수 기능 탑재의 하이브리드 타입을 새로이 내놓는다.



<그림 8> 크로스워커의 새로운 정규 상품 그렌체크